

SAEROUN QT

새벽예배 설교 한 흥 목사 · 매주 화-토 6:20 AM · 새로운교회(컨벤션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로마서]



전쟁을 아는 세대 vs. 전쟁을 모르는 세대



하나님께서 사사 시대 초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을 아는 세대”와 “전쟁을 모르는 세대”로 구분하셨습니다. 여기서 “전쟁”이라 함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들어와서 치른 7년여에 걸친 정복 전쟁을 뜻합니다. “전쟁을 아는 세대”는 바로 이 전쟁을 치러낸 기성세대 어른들로서, 광야에서 태어나 고난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만나라는 미라클 푸드를 먹었으며,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입니다.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렀고, 그 뒤에도 긴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나라의 기초

를 세우기 위해 밤낮 없이 일만 하고 살았습니다. 외세의 침략에 굴하지 않는 강한 나라, 삼시세끼 배곯지 않아도 되는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서 자손들에게 물려 주겠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 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수십 년 후 여호수아와 전쟁을 아는 그 세대가 사라지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으니, 그들이 바로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신세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의 힘들었던 시절을 경험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을 직접 목격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세대가 30~40대가 되면서 서서히 이스라엘의 주도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부모가 피땀 흘려 정복한 가나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부모 세대는 고집만 세고 세련되지 못해서 대화가 안 된다고 느꼈습니다. 이들은 특하면 옛날얘기만 하는 기성세대가 고리타분하고, 부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가 어른 존중할 줄 모르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위험하고 불안한 아이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함께 살아야 했던 수십 년은 상당한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세월이 흐르면서 전쟁을 모르는 이스라엘 젊은 세대들은 가나안 족속들과 결혼하면서 그들의 우상숭배에 급속도로 전염되었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전쟁을 모르는 자녀 세대의 영적 타락의 원인 제공을 전쟁을 아는 당시 이스라엘의 부모 세대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던 광야 시절에는 그래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섬겼던 부모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난 뒤,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난 뒤 삶이 안정되면서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손에서 갈과 창을 놓고, 농사를 지으면서 처음으로 풍요로운 물질문명을 맛보게 되니까, 점점 욕심이 생긴 겁니다.

광야 시절을 거치고 정복 전쟁 치를 때는 긴장이 되어서 단순하고 순수했던 사람들이 이제 살만해지니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찍부터 그 땅에 자리 잡고 살던 가나안 민족들의 세련된 삶에 점점 동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뒤로는 조금씩 가나안의 사치문화, 음란문화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부모 세대의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그들의 자녀 세대,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게 모범이 되지 못했고, 영적인 혼란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3천 5백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 한국교회를 키웠던 그 불같은 기도의 열정, 회개의 눈물, 겸손한 섬김, 희생적 헌신을 우리는 풍요로운 물질문명에 취해서 어느새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크리스천 부모 세대들이 주일날 보이는 모습과 주중에 세상에서 사는 모습이 너무나 달랐다는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뼈아프게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상처받고 믿음을 떠난 자녀 세대 앞에 참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자녀 세대도 부족하지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던 부모 세대를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예수 안에서 만나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서로에게 배우는 것. 그것이 주님이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모아 주신 이유일 것입니다.

새로운교회 담임목사 **한홍**

SAEROUN QT

새벽예배 설교 한 홍 목사 · 매주 화-토 6:20 AM · 새로운교회(컨벤션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로마서]



2025.
06

SAEROUN

QT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1 환우들을 위한 기도회	2	3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4
8 세례식	9	10	11 수요 커피브레이크 개강
15	16	17	18 몽골 뉴젠포서 세미나 6/18(수)-21(토)
22 새로운 생명을 위한 '한나기도회'	23 몽골 현지인사역자대회 6/23(월)-27(금)	24	25
29	30	1	2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5	6 현충일	7
12	13	14 뉴젠포 교사아카데미 남성사역 편편 스포츠
19	20	21
26	27	28
3	4	5

5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7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025.
06

1	주일	[여름말씀부흥집회] 제자와 언약	창 15:12,17-18
2	월	마음에 새긴 언약	히 8:10-12
3	화	[대통령 선거일] 정의와 평화의 나라를 꿈꾸며	시 72:1-7
4	수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롬 2:1-5
5	목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롬 2:6-11
6	금	[현충일] 평안한 나라, 거룩한 백성	딤후 2:1-4
7	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롬 2:12-16
8	주일	드보라의 개선가 (2)	삿 5:13-23 & 31
9	월	미리암의 노래	출 15:19-21
10	화	율법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나니	롬 2:17-24
11	수	표면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	롬 2:25-29
12	목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롬 3:1-8
13	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롬 3:9-20
14	토	예수로 말미암아 난 하나님의 의	롬 3:21-26
15	주일	큰 용사여	삿 6:1-24
16	월	세우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렘 1:4-10
17	화	율법을 세우는 믿음	롬 3:27-31
18	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	롬 4:1-8
19	목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롬 4:9-17
20	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롬 4:18-25
21	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롬 5:1-5
22	주일	여호와와 영이 기도온에게 임하시니	삿 6:25-40
23	월	너도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삼상 10:6-10
24	화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확증	롬 5:6-11
25	수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롬 5:12-21
26	목	그리스도와 합하여	롬 6:1-9
27	금	은혜 아래 거하는 성도	롬 6:10-14
28	토	순종의 종으로 얻는 의	롬 6:15-23
29	주일	300 용사를 뽑으시다	삿 7:1-8
30	월	작은 것이 주의 손에 들릴 때	요 6:5-13

새로운 QT

경건의 시간을 갖는 방법

묵상(경건의 시간, QT)이란

- QT는
01.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02. 성경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며,
 03. 삶에 적용함으로써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고자 하는 경건훈련입니다.

... 찬양과 기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기도하며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염려와 세속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나아가십시오.

... 본문 읽기와 묵상하기

본문 말씀을 2~3회 정도 읽은 후, 특별히 마음에 와닿거나 깨달아지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왜 내게 그 말씀을 주셨는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또한 묵상(Meditation)과 적용(Application)의 질문을 참고하십시오.

... 적용하기

묵상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은 나의 잘못에 대한 지적이나 혹은 격려,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인도 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내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적용하고 기록하십시오.

... 기도하기

오늘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구하며 하나님께 하루를 맡겨 드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 나눔

QT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변화된 나의 삶을 순예배에서 순원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또한 순예배 가이드를 참고해서 교재로 순예배를 드리고 나누십시오.



효과적인 중보기도를 위한 가이드

찬양과 기도

중보기도란 다른 사람을 위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따라서 내 가족과 이웃, 사회와 나라, 민족 전체와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든 것이 중보기도에 포함됩니다.

중보기도의 순서

1. 회개

자신 안에 고백하지 않은 숨은 죄가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도록 성령님께 시간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함을 받습니다.

2. 개인과 가정을 위하여

- 1) 배우자와 자녀들의 영적성장과 건강,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 2) 불신자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3. 교회와 선교를 위하여

- 1)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 순장, 임직자 및 각 사역 팀장님들 위에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모든 사역 위에 기름부으심이 있도록 기도합니다.
- 2) 열방을 향한 선교의 비전이 확장되어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고 선교지에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합니다.

4. 사회와 나라를 위하여

- 1)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 외 모든 위정자와 정부 기관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섬김의 정신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 2) 이 나라에 건전한 경제 질서의 기반이 세워지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정직과 나눔, 청지기 정신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 3) 올바른 교육정책을 수립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합니다.
- 4) 인터넷, 신문, 방송, TV, 잡지 등 모든 언론 매체가 진실에 기반을 두도록 기도합니다.
- 5) 타 종교에 속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공하심이 경험되며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도합니다.
- 6) 부부와 자녀, 그리고 형제 간에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는 사회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순예배시

순원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할 때

- 1) 지난주 순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을 받은 내용들에 대해 나누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 2) 새로운 기도의 제목들을 빈 칸에 적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를 합니다.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를 할 때

- 1) 선교와 사회참여에 관련해 요청된 기도제목들을 놓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 2) 우리 교회 내 다양한 사역부서들 가운데 매주 부서별로 올라온 기도제목들 가지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01

주일

제자와 언약

창 15:12, 17-18

- 12 해 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As the sun was setting, Abram fell into a deep sleep,
and a thick and dreadful darkness came over him.

- 17 해가 저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
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When the sun had set and darkness had fallen, a
smoking firepot with a blazing torch appeared and
passed between the pieces.

- 18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On that day the LORD made a covenant with Abram
and said, "To your descendants I give this land, from
the Wadi of Egypt to the great river, the Euphrates—



박정근 목사
부산영안교회 원로

02

월

마음에 새긴
언약

히 8:10-12

- 10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 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This is the covenant I will establish with the people of Israel after that time, declares the Lord. I will put my laws in their minds and write them on their hearts. I will be their God, and they will be my people.

- 11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앎이라

No longer will they teach their neighbor, or say to one another, 'Know the Lord,' because they will all know me, from the least of them to the greatest.

- 12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For I will forgive their wickedness and will remember their sins no more."



03

화

정의와 평화의
나라를 꿈꾸며

시 72:1-7

- 1 하나님이며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Endow the king with your justice, O God, the royal son with your righteousness.

- 2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May he judge your people in righteousness, your afflicted ones with justice.

- 3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May the mountains bring prosperity to the people, the hills the fruit of righteousness.

- 4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 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May he defend the afflicted among the people and save the children of the needy; may he crush the oppressor.

- 5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May he endure as long as the sun, as long as the moon, through all generations.

- 6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 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 같이 내리리니

May he be like rain falling on a mown field, like showers watering the earth.

- 7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In his days may the righteous flourish and prosperity abound till the moon is no more.

04

수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롬 2:1-5

- 1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You, therefore, have no excuse, you who pass judgment on someone else, for at whatever point you judge another, you are condemning yourself, because you who pass judgment do the same things.

- 2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Now we know that God's judgment against those who do such things is based on truth.

- 3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So when you, a mere human being, pass judgment on them and yet do the same things, do you think you will escape God's judgment?

- 4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Or do you show contempt for the riches of his kindness, forbearance and patience, not realizing that God's kindness is intended to lead you to repentance?

- 5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But because of your stubbornness and your unrepentant heart, you are storing up wrath against yourself for the day of God's wrath, when his righteous judgment will be revealed.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05

목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롬 2:6-11

- 6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God "will repay each person according to what they have done."

- 7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To those who by persistence in doing good seek glory, honor and immortality, he will give eternal life.

- 8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But for those who are self-seeking and who reject the truth and follow evil, there will be wrath and anger.

- 9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There will be trouble and distress for every human being who does evil: first for the Jew, then for the Gentile;

- 10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but glory, honor and peace for everyone who does good: first for the Jew, then for the Gentile.

- 11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For God does not show favoritism.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06

금

평안한 나라,
거룩한 백성

딤후전 2:1-4

- 1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I urge, then, first of all, that petitions, prayers, intercession and thanksgiving be made for all people—

- 2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for kings and all those in authority, that we may live peaceful and quiet lives in all godliness and holiness.

- 3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This is good, and pleases God our Savior,

- 4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who wants all people to be saved and to come to a knowledge of the truth.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롬 2:12-16

- 12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All who sin apart from the law will also perish apart from the law, and all who sin under the law will be judged by the law.

- 13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For it is not those who hear the law who are righteous in God's sight, but it is those who obey the law who will be declared righteous

- 14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 자신이 율법이 되나니

(Indeed, when Gentiles, who do not have the law, do by nature things required by the law, they are a law for themselves, even though they do not have the law.

- 15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They show that the requirements of the law are written on their hearts, their consciences also bearing witness, and their thoughts sometimes accusing them and at other times even defending them.)

- 16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This will take place on the day when God judges people's secrets through Jesus Christ, as my gospel declares.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08

주일

드보라의
개선거 (2)

삿 5:13-23 & 31

- 13 그 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The remnant of the nobles came down; the people of the LORD came down to me against the mighty.

- 14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Some came from Ephraim, whose roots were in Amalek; Benjamin was with the people who followed you. From Makir captains came down, from Zebulun those who bear a commander's staff.

- 15 잇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 하니 잇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The princes of Issachar were with Deborah; yes, Issachar was with Barak, sent under his command into the valley. In the districts of Reuben there was much searching of heart.

- 16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음은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Why did you stay among the sheep pens to hear the whistling for the flocks? In the districts of Reuben there was much searching of heart.

- 17 길르앗은 요단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Gilead stayed beyond the Jordan. And Dan, why did he linger by the ships? Asher remained on the coast and stayed in his coves.

- 18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The people of Zebulun risked their very lives; so did Naphtali on the terraced fields.

- 19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므깃도 물 가 다아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Kings came, they fought, the kings of Canaan fought. At Taanach, by the waters of Megiddo, they took no plunder of silver.

- 20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From the heavens the stars fought, from their courses they fought against Sisera.

- 21 기손 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 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The river Kishon swept them away, the age-old river, the river Kishon. March on, my soul; be strong!

- 22 그 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Then thundered the horses' hooves— galloping, galloping go his mighty steeds.

- 23 여호와와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Curse Meroz,’ said the angel of the LORD. ‘Curse its people bitterly, because they did not come to help the LORD, to help the LORD against the mighty.’

- 31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 있게 돌음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사십 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So may all your enemies perish, LORD! But may all who love you be like the sun when it rises in its strength.” Then the land had peace forty years.

09

월

미리암의 노래

출 15:19-21

- 19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갈 때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When Pharaoh's horses, chariots and horsemen went into the sea, the LORD brought the waters of the sea back over them, but the Israelites walked through the sea on dry ground.

- 20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Then Miriam the prophet, Aaron's sister, took a timbrel in her hand, and all the women followed her, with timbrels and dancing.

- 21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하였더라

Miriam sang to them: "Sing to the LORD, for he is highly exalted. Both horse and driver he has hurled into the sea."



율법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나니

롬 2:17-24

17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Now you, if you call yourself a Jew; if you rely on the law and boast in God;

18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if you know his will and approve of what is superior because you are instructed by the law;

19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if you are convinced that you are a guide for the blind, a light for those who are in the dark,

20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an instructor of the foolish, a teacher of little children, because you have in the law the embodiment of knowledge and truth—

21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you, then, who teach others, do you not teach yourself? You who preach against stealing, do you steal?

22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You who say that people should not commit adultery, do you commit adultery? You who abhor idols, do you rob temples?

23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You who boast in the law, do you dishonor God by breaking the law?

24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As it is written: "God's name is blasphemed among the Gentiles because of you."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11

수

표면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

롬 2:25-29

- 25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Circumcision has value if you observe the law, but if you break the law, you have become as though you had not been circumcised.

- 26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So then, if those who are not circumcised keep the law's requirements, will they not be regarded as though they were circumcised?

- 27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The one who is not circumcised physically and yet obeys the law will condemn you who, even though you have the written code and circumcision, are a lawbreaker.

- 28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A person is not a Jew who is one only outwardly, nor is circumcision merely outward and physical.

- 29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No, a person is a Jew who is one inwardly; and circumcision is circumcision of the heart, by the Spirit, not by the written code. Such a person's praise is not from other people, but from God.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롬 3:1-8

- 1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나

What advantage, then, is there in being a Jew, or what value is there in circumcision?

- 2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Much in every way! First of all, the Jews have been entrusted with the very words of God.

- 3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겠느냐

What if some were unfaithful? Will their unfaithfulness nullify God's faithfulness?

- 4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 Not at all! Let God be true, and every human being a liar. As it is written: "So that you may be proved right when you speak and prevail when you judge."

- 5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나

But if our unrighteousness brings out God's righteousness more clearly, what shall we say? That God is unjust in bringing his wrath on us? (I am using a human argument.)

- 6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Certainly not! If that were so, how could God judge the world?

- 7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Someone might argue, "If my falsehood enhances God's truthfulness and so increases his glory, why am I still condemned as a sinner?"

- 8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Why not say—as some slanderously claim that we say—"Let us do evil that good may result"? Their condemnation is just!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롬 3:9-20

- 9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What shall we conclude then? Do we have any
advantage? Not at all! For we have already made the
charge that Jews and Gentiles alike are all under the
power of sin.

- 10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As it is written: "There is no one righteous, not even
one;

- 11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there is no one who understands; there is no one
who seeks God.

- 12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All have turned away, they have together become
worthless; there is no one who does good, not even
one."

- 13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Their throats are open graves; their tongues
practice deceit." "The poison of vipers is on their
lips."

- 14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Their mouths are full of cursing and bitterness."

- 15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Their feet are swift to shed blood;

- 16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ruin and misery mark their ways,

- 17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and the way of peace they do not know."

- 18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
라 함과 같으니라
"There is no fear of God before their eyes."

- 19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Now we know that whatever the law says, it says
to those who are under the law, so that every
mouth may be silenced and the whole world held
accountable to God.

- 20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Therefore no one will be declared righteous in God's
sight by the works of the law; rather, through the law
we become conscious of our sin.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난 하나님의 의

롬 3:21-26

21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But now apart from the law the righteousness of God has been made known, to which the Law and the Prophets testify.

22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This righteousness is given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to all who believe.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Jew and Gentile,

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2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and all are justified freely by his grace through the redemption that came by Christ Jesus.

25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God presented Christ as a sacrifice of atonement, through the shedding of his blood—to be received by faith. He did this to demonstrate his righteousness, because in his forbearance he had left the sins committed beforehand unpunished—

26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he did it to demonstrate his righteousness at the present time, so as to be just and the one who justifies those who have faith in Jesus.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15

주일

큰 용사여

삿 6:1-24

- 1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칠 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 주시니

The Israelites did evil in the eyes of the LORD, and for seven years he gave them into the hands of the Midianites.

- 2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Because the power of Midian was so oppressive, the Israelites prepared shelters for themselves in mountain clefts, caves and strongholds.

- 3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Whenever the Israelites planted their crops, the Midianites, Amalekites and other eastern peoples invaded the country.

- 4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 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They camped on the land and ruined the crops all the way to Gaza and did not spare a living thing for Israel, neither sheep nor cattle nor donkeys.

- 5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They came up with their livestock and their tents like swarms of locusts. It was impossible to count them or their camels; they invaded the land to ravage it.

- 6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Midian so impoverished the Israelites that they cried out to the LORD for help.

- 7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When the Israelites cried out to the LORD because of Midian,

- 8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he sent them a prophet, who said, "This is what the LORD, the God of Israel, says: I brought you up out of Egypt, out of the land of slavery.

- 9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I rescued you from the hand of the Egyptians. And I delivered you from the hand of all your oppressors; I drove them out before you and gave you their land.

- 10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I said to you, 'I am the LORD your God; do not worship the gods of the Amorites, in whose land you live.' But you have not listened to me."

- 11 여호와와 사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The angel of the LORD came and sat down under the oak in Ophrah that belonged to Joash the Abiezrite, where his son Gideon was threshing wheat in a winepress to keep it from the Midianites.

- 12 여호와와 사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When the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Gideon, he said, "The LORD is with you, mighty warrior."

- 13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대 하니

"Pardon me, my lord," Gideon replied, "but if the LORD is with us, why has all this happened to us? Where are all his wonders that our ancestors told us about when they said, 'Did not the LORD bring us up out of Egypt?' But now the LORD has abandoned us and given us into the hand of Midian."

- 14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The LORD turned to him and said, "Go in the strength you have and save Israel out of Midian's hand. Am I not sending you?"

- 15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Pardon me, my lord," Gideon replied, "but how can I save Israel? My clan is the weakest in Manasseh, and I am the least in my family."

- 16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The LORD answered, "I will be with you, and you will strike down all the Midianites, leaving none alive."

- 17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Gideon replied, "If now I have found favor in your eyes, give me a sign that it is really you talking to me."

- 18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 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Please do not go away until I come back and bring my offering and set it before you.” And the LORD said, “I will wait until you return.”

- 19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Gideon went inside, prepared a young goat, and from an ephah of flour he made bread without yeast. Putting the meat in a basket and its broth in a pot, he brought them out and offered them to him under the oak.

- 20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The angel of God said to him, “Take the meat and the unleavened bread, place them on this rock, and pour out the broth.” And Gideon did so.

- 21 여호와와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와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Then the angel of the LORD touched the meat and the unleavened bread with the tip of the staff that was in his hand. Fire flared from the rock, consuming the meat and the bread. And the angel of the LORD disappeared.

- 22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와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와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When Gideon realized that it was the angel of the LORD, he exclaimed, “Alas, Sovereign LORD! I have seen the angel of the LORD face to face!”

- 23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But the LORD said to him, “Peace! Do not be afraid. You are not going to die.”

- 24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So Gideon built an altar to the LORD there and called it The LORD Is Peace. To this day it stands in Ophrah of the Abiezrites.

16

월

세우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렘 1:4-10

- 4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me, saying,

- 5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
-
- 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
-
- 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Before I formed you in the womb I knew you, before
you were born I set you apart; I appointed you as a
prophet to the nations."

- 6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
-
- 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
- 하니

"Alas, Sovereign LORD," I said, "I do not know how to
speak; I am too young."

- 7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
-
- 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
-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
-
- 할지니라

But the LORD said to me, "Do not say, 'I am too
young.' You must go to everyone I send you to and
say whatever I command you."

- 8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
- 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와
-
- 말이니라 하시고

Do not be afraid of them, for I am with you and will
rescue you," declares the LORD.

- 9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
-
- 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
-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Then the LORD reached out his hand and touched
my mouth and said to me, "I have put my words in
your mouth."

- 10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
-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
-
- 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
-
- 라 하시니라

See, today I appoint you over nations and kingdoms
to uproot and tear down, to destroy and overthrow,
to build and to plant."

율법을 세우는 믿음

롬 3:27-31

27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나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Where, then, is boasting? It is excluded. Because of what law? The law that requires works? No, because of the law that requires faith.

28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For we maintain that a person is justified by faith apart from the works of the law.

29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Or is God the God of Jews only? Is he not the God of Gentiles too? Yes, of Gentiles too,

30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since there is only one God, who will justify the circumcised by faith and the uncircumcised through that same faith.

31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Do we, then, nullify the law by this faith? Not at all! Rather, we uphold the law.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

롬 4:1-8

- 1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What then shall we say that Abraham, our forefather according to the flesh, discovered in this matter?

- 2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If, in fact, Abraham was justified by works, he had something to boast about—but not before God.

- 3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What does Scripture say? "Abraham believed God, and it was credited to him as righteousness."

- 4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Now to the one who works, wages are not credited as a gift but as an obligation.

- 5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However, to the one who does not work but trusts God who justifies the ungodly, their faith is credited as righteousness.

- 6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David says the same thing when he speaks of the blessedness of the one to whom God credits righteousness apart from works:

- 7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Blessed are those whose transgressions are forgiven, whose sins are covered.

- 8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Blessed is the one whose sin the Lord will never count against them."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롬 4:9-17

- 9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나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Is this blessedness only for the circumcised, or also for the uncircumcised? We have been saying that Abraham's faith was credited to him as righteousness.

- 10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나 무할례시나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Under what circumstances was it credited? Was it after he was circumcised, or before? It was not after, but before!

- 11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And he received circumcision as a sign, a seal of the righteousness that he had by faith while he was still uncircumcised. So then, he is the father of all who believe but have not been circumcised, in order that righteousness might be credited to them.

- 12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And he is then also the father of the circumcised who not only are circumcised but who also follow in the footsteps of the faith that our father Abraham had before he was circumcised.

- 13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It was not through the law that Abraham and his offspring received the promise that he would be heir of the world, but through the righteousness that comes by faith.

- 14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For if those who depend on the law are heirs, faith means nothing and the promise is worthless,

- 15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because the law brings wrath. And where there is no law there is no transgression.

- 16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Therefore, the promise comes by faith, so that it may be by grace and may be guaranteed to all Abraham's offspring—not only to those who are of the law but also to those who have the faith of Abraham. He is the father of us all.

- 17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As it is written: "I have made you a father of many nations." He is our father in the sight of God, in whom he believed—the God who gives life to the dead and calls into being things that were not.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롬 4:18-25

18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Against all hope, Abraham in hope believed and so became the father of many nations, just as it had been said to him, "So shall your offspring be."

19 그가 백 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Without weakening in his faith, he faced the fact that his body was as good as dead—since he was about a hundred years old—and that Sarah's womb was also dead.

20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Yet he did not waver through unbelief regarding the promise of God, but was strengthened in his faith and gave glory to God,

21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being fully persuaded that God had power to do what he had promised.

22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This is why "it was credited to him as righteousness."

23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The words "it was credited to him" were written not for him alone,

24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but also for us, to whom God will credit righteousness—for us who believe in him who raised Jesus our Lord from the dead.

25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죽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 나셨느니라

He was delivered over to death for our sins and was raised to life for our justification.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롬 5:1-5

- 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Therefore, since we have been justified through faith, we have peace with God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 2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through whom we have gained access by faith into this grace in which we now stand. And we boast in the hope of the glory of God.

- 3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Not only so, but we also glory in our sufferings, because we know that suffering produces perseverance;

- 4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perseverance, character; and character, hope.

- 5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And hope does not put us to shame, because God's love has been poured out into our hearts through the Holy Spirit, who has been given to us.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22

주일

여호와와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삿 6:25-40

- 25 그 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칠 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 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결의 아세라 상을 찍고

That same night the LORD said to him, "Take the second bull from your father's herd, the one seven years old. Tear down your father's altar to Baal and cut down the Asherah pole beside it.

- 26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Then build a proper kind of altar to the LORD your God on the top of this height. Using the wood of the Asherah pole that you cut down, offer the second bull as a burnt offering."

- 27 이에 기드온이 종 열 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So Gideon took ten of his servants and did as the LORD told him. But because he was afraid of his family and the townspeople, he did it at night rather than in the daytime.

- 28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결의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In the morning when the people of the town got up, there was Baal's altar, demolished, with the Asherah pole beside it cut down and the second bull sacrificed on the newly built altar!

- 29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묻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They asked each other, "Who did this?" When they carefully investigated, they were told, "Gideon son of Joash did it."

- 30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결의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The people of the town demanded of Joash, "Bring out your son. He must die, because he has broken down Baal's altar and cut down the Asherah pole beside it."

- 31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대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룰 것이니라 하니라

But Joash replied to the hostile crowd around him, "Are you going to plead Baal's cause? Are you trying to save him? Whoever fights for him shall be put to death by morning! If Baal really is a god, he can defend himself when someone breaks down his altar."

- 32 그 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So because Gideon broke down Baal's altar, they gave him the name Jerub-Baal that day, saying, "Let Baal contend with him."

- 33 그 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 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Now all the Midianites, Amalekites and other eastern peoples joined forces and crossed over the Jordan and camped in the Valley of Jezreel.

- 34 여호와와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Then the Spirit of the LORD came on Gideon, and he blew a trumpet, summoning the Abiezrites to follow him.

- 35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He sent messengers throughout Manasseh, calling them to arms, and also into Asher, Zebulun and Naphtali, so that they too went up to meet them.

- 36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쭙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Gideon said to God, “If you will save Israel by my hand as you have promised—

- 37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look, I will place a wool fleece on the threshing floor. If there is dew only on the fleece and all the ground is dry, then I will know that you will save Israel by my hand, as you said.”

- 38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And that is what happened. Gideon rose early the next day; he squeezed the fleece and wrung out the dew—a bowlful of water.

- 39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쭙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Then Gideon said to God, “Do not be angry with me. Let me make just one more request. Allow me one more test with the fleece, but this time make the fleece dry and let the ground be covered with dew.”

- 40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That night God did so. Only the fleece was dry; all the ground was covered with dew.

23

월

너도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삼상 10:6-10

- 6 네게는 여호와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The Spirit of the LORD will come powerfully upon you, and you will prophesy with them; and you will be changed into a different person.

- 7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Once these signs are fulfilled, do whatever your hand finds to do, for God is with you.

- 8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칠 일 동안 기다리라

"Go down ahead of me to Gilgal. I will surely come down to you to sacrifice burnt offerings and fellowship offerings, but you must wait seven days until I come to you and tell you what you are to do."

- 9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 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As Saul turned to leave Samuel, God changed Saul's heart, and all these signs were fulfilled that day.

- 10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므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When he and his servant arrived at Gibeah, a procession of prophets met him; the Spirit of God came powerfully upon him, and he joined in their prophesying.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확증

롬 5:6-11

- 6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You see, at just the right time, when we were still powerless, Christ died for the ungodly.

- 7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Very rarely will anyone die for a righteous person, though for a good person someone might possibly dare to die.

- 8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But God demonstrates his own love for us in this: While we were still sinners, Christ died for us.

- 9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Since we have now been justified by his blood, how much more shall we be saved from God's wrath through him!

- 10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 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For if, while we were God's enemies, we were reconciled to him through the death of his Son, how much more, having been reconciled, shall we be saved through his life!

- 11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Not only is this so, but we also boast in God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through whom we have now received reconciliation.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롬 5:12-21

12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3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14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15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16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17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18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20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21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그리스도와
합하여

롬 6:1-9

- 1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
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What shall we say, then? Shall we go on sinning so
that grace may increase?

- 2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By no means! We are those who have died to sin;
how can we live in it any longer?

- 3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Or don't you know that all of us who were baptized
into Christ Jesus were baptized into his death?

- 4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
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
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We were therefore buried with him through baptism
into death in order that, just as Christ was raised
from the dead through the glory of the Father, we
too may live a new life.

- 5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
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For if we have been united with him in a death like
his, we will certainly also be united with him in a
resurrection like his.

- 6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 하지 아니하
려 함이니

For we know that our old self was crucified with him
so that the body ruled by sin might be done away
with, that we should no longer be slaves to sin—

- 7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
을 얻었음이라

because anyone who has died has been set free
from sin.

- 8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Now if we died with Christ, we believe that we will
also live with him.

- 9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나셨으매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앎이로라

For we know that since Christ was raised from the
dead, he cannot die again; death no longer has
mastery over him.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은혜 아래
거하는 성도

롬 6:10-14

- 10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The death he died, he died to sin once for all; but the life he lives, he lives to God.

- 11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In the same way, count yourselves dead to sin but alive to God in Christ Jesus.

- 12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Therefore do not let sin reign in your mortal body so that you obey its evil desires.

- 13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Do not offer any part of yourself to sin as an instrument of wickedness, but rather offer yourselves to God as those who have been brought from death to life; and offer every part of yourself to him as an instrument of righteousness.

- 14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For sin shall no longer be your master, because you are not under the law, but under grace.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순종의 종으로 얻는 의

롬 6:15-23

- 15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What then? Shall we sin because we are not under the law but under grace? By no means!

- 16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 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 르느니라

Don't you know that when you offer yourselves to someone as obedient slaves, you are slaves of the one you obey—whether you are slaves to sin, which leads to death, or to obedience, which leads to righteousness?

- 17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 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But thanks be to God that, though you used to be slaves to sin, you have come to obey from your heart the pattern of teaching that has now claimed your allegiance.

- 18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You have been set free from sin and have become slaves to righteousness.

- 19 너희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I am using an example from everyday life because of your human limitations. Just as you used to offer yourselves as slaves to impurity and to ever-increasing wickedness, so now offer yourselves as slaves to righteousness leading to holiness.

- 20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When you were slaves to sin, you were free from the control of righteousness.

- 21 너희가 그 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What benefit did you reap at that time from the things you are now ashamed of? Those things result in death!

- 22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But now that you have been set free from sin and have become slaves of God, the benefit you reap leads to holiness, and the result is eternal life.

- 23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but th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our Lord.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29

주일

300 용사를
뽑으시다

삿 7:1-8

- 1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 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Early in the morning, Jerub-Baal (that is, Gideon) and all his men camped at the spring of Harod. The camp of Midian was north of them in the valley near the hill of Moreh.

- 2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The LORD said to Gideon, "You have too many men. I cannot deliver Midian into their hands, or Israel would boast against me, 'My own strength has saved me.'"

- 3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이만 이천 명이요 남은 자가 만 명이었더라

Now announce to the army, 'Anyone who trembles with fear may turn back and leave Mount Gilead.'" So twenty-two thousand men left, while ten thousand remained.

- 4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 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끄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끄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But the LORD said to Gideon, "There are still too many men. Take them down to the water, and I will thin them out for you there. If I say, 'This one shall go with you,' he shall go; but if I say, 'This one shall not go with you,' he shall not go."

- 5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So Gideon took the men down to the water. There the LORD told him, "Separate those who lap the water with their tongues as a dog laps from those who kneel down to drink."

- 6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삼백 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Three hundred of them drank from cupped hands, lapping like dogs. All the rest got down on their knees to drink.

- 7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삼백 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 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The LORD said to Gideon, "With the three hundred men that lapped I will save you and give the Midianites into your hands. Let all the others go home."

- 8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삼백 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So Gideon sent the rest of the Israelites home but kept the three hundred, who took over the provisions and trumpets of the others. Now the camp of Midian lay below him in the valley.

30

월

작은 것이
주의 손에 들릴 때

요 6:5-13

- 5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When Jesus looked up and saw a great crowd coming toward him, he said to Philip, "Where shall we buy bread for these people to eat?"

- 6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He asked this only to test him, for he already had in mind what he was going to do.

- 7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백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Philip answered him, "It would take more than half a year's wages to buy enough bread for each one to have a bite!"

- 8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Another of his disciples, Andrew, Simon Peter's brother, spoke up,

- 9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Here is a boy with five small barley loaves and two small fish, but how far will they go among so many?"

- 10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 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오천 명쯤 되더라

Jesus said, "Have the people sit down." There was plenty of grass in that place, and they sat down (about five thousand men were there).

- 11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Jesus then took the loaves, gave thanks, and distributed to those who were seated as much as they wanted. He did the same with the fish.

- 12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When they had all had enough to eat, he said to his disciples, "Gather the pieces that are left over. Let nothing be wasted."

- 13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So they gathered them and filled twelve baskets with the pieces of the five barley loaves left over by those who had eaten.



개인기도제목 - 1주차

[illegible]

개인기도제목 - 2주차

[illegible]



개인기도제목 - 3주차

[illegible]

 개인기도제목 - 4주차

[illegible]

2025.
06제주선교
간증

01

1. 최호원 성도 (C강남공동체)
2. 장지혜B 집사 (S강남공동체)
3. 이형환 집사 (S강남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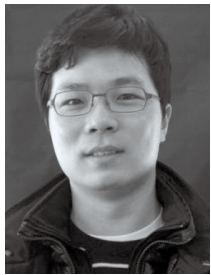


2025 제주 아웃리치

5.5(월)-5.7(수)

제주에서 경험하는 가족 전도의 은혜

최호원 성도 (C강남공동체)



외갓집이 제주도였던 저는 명절마다 제주도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친할머니, 외할머니가 절에서 만난 인연으로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친척들 모두 독실한 불교 신자이시며 저 또한 불교 집안에서 자라왔습니다. 저는 아내를 만나 교회에 나오고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믿음이 자라나며 제주도에 갈 때마다 외할머니와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제 가족 중 저 혼자만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이 죄송스럽기도 했습니다.

선교 둘째 날 5월 6일은 제게 잊지 못할 하루가 되었습니다. 선교 출발을 열흘 정도 앞두고, 어머니와 통화 중 저희 가족의 제주선교 일정을 열렬하게 말씀드리게 되었고, 어머니도 그 자리에 오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역시나 본인은 가지 않겠다는 차가운 답변을 받고 전화를 끊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부모님께서 이 기회를 통해 교회에 오시게 해 달라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5월 6일 마을잔치에 '석가탄신일 행사'가 있어 오후 늦게라도 오시기로 했지만 올해 칠순이신 어머니가 처음으로 교회의 문턱을 넘는 일은 마지막까지 쉽지 않았습니다. 막상 가나안교회 앞까지 오셨지만, 부모님은 교회 건물 안으로 절대 한 발자국도 들어오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잠시 인사를 하시고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 하셨습니다. 뉴젠 예배를 마치기까지 한 시간여 동안 하나님께서는 교회 바로 문 앞에서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신 저희 부모님을 제 아내뿐 아니라 권사님, 집사님들을 통해 붙들어 주셨고, 뉴젠 예배를 마치고 나온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부모님은 저희 네 식구와 함께 주방팀에서 정성껏 섬겨주신 식사를 맛있게 드시고 한방사역과 권사님들을 통해 복음과 사영리에 대해 전해들으셨으며, 손목에는 복음팔찌를 차고 기쁘게 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다음 달이면 저희 부모님은 다시 서울로 이사를 하십니다. 이제 우리 새로운교회에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릴 날이 멀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이번 제주선교를 통해 복음의 씨앗이 저희 부모님의 마음 밭에 심겼으며, 그 씨앗이 꼭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확신을 하나님께서 이번 제주선교를 통해 제게 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신 권사님, 집사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부모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이번 제주선교의 은혜와 감동을 통해서 앞으로 제주 땅의 복음화를 위해 더 기도하며 기대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벌써 다음 제주선교가 너무나 기대가 되고, 가나안교회 아이들의 기쁨 가득한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제주 땅에 세운 길갈의 열 두 돌

장지혜B 집사 (S강남공동체)



어릴 때는 함께 놀아달라, 엄마가 최고다 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제 품을 떠난 지도 오래입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많이 이야기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해줄

텐데... 아이들의 어릴 적 사진을 보고 있으면 외롭고 서글픈 마음에 눈물 흘리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도 함께 갈 수 있는 제주선교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이거다 싶었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추억을 함께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물어보지도 않고 신청을 먼저 했습니다. 청소년 아이들을 억지로 데리고 갈 수는 없기에 스스로 결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침 6시마다 일어나 기도하고 밤마다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선교를 왜 가야 하는지 모르겠고 학교 시험 준비와 학원, 늦잠을 자고 싶다는 이유로 거절하다가 결국에는 중간고사 시험도 끝났으니 가겠다고 아주 쿨 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제가 함께했던 뉴젠 사역은 제주도의 청소년 친구들과 우리 새로운교회 친구들이 함께하는 사역인데 처음 만나 어색하지 않을까... 서로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기를 간절히 중보 하였습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세분의 청년 뉴젠 선생님들의 탁월한 섬김으로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아이들 얼굴에 웃

음꽃이 피었습니다. 감정 표현 잘 안 하는 아들이 갑자기 목사님을 향하여 두 손 들어 엄지 척을 하며 좋아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로운교회 중고등부 자녀들이 사역 가기 전부터 열심히 준비한 순서가 있었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순례자의 길을 찾아다니며 교회를 탐방하며 선교지 가이드 역할을 하며 미션을 만들어 활동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 벽 페인트 칠을 돕고 전도 축제 잔치 준비를 도와드리며 식탁을 닦는 등 처음 보는 아들의 모습에 저희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황금 같은 휴일에 지역이 다른 청소년들을 만나도록 그 발걸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혼자라면 안 했을 텐데 동역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믿음의 친구들이 있고, 이끌어주시는 교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지를 절실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아이들도 좋은 믿음의 선배가 되고, 교사가 되어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별과 같은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이 중요한 것처럼 선교도 선교를 다녀와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만 붙들었던 기도의 시간들과 간절했던 마음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이어가고 싶습니다. 다음 세대인 아이들과 함께 길갈의 열 두 돌을 세우게 하시고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주에서 경험하는 가족 전도의 은혜

이형환 집사 (S강남공동체)



5월 5일부터 7일까지 제주 강변교회로 선교를 떠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에는 한편으로는 설렘이, 다른 한편으로는 책임감이 가득 찼습니다.

보수팀 조장이라는 역할을 맡았기에 교회의 여러 곳을 손보고 정리하며 하나님의 집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일이 맡겨졌다는 생각에 주님의 지혜와 인도를 구하며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선교 첫날부터 우리는 외벽 페인트 칠을 시작했습니다. 묵은 때가 묻은 벽을 닦아내고, 기초 작업과 여러 가지 아름다운 색으로 덧칠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페인트가 벽에 입혀질 때마다, 교회가 조금씩 깨끗해지고 새로워지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길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집을 아름답게 가꾸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첫날 오후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우리 마음을 애태웠지만 너무도 절묘하게 날씨를 통제하셨고 사역을 멈추지 않고, 산뜻하고 컬러풀하게 잘 마무리하게 하신 주님의 동행하심을 모두가 느끼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교회 앞에 놓여 있던 화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낡고, 식물들도 말라 있었습니다. 새로운 화분으로 교체하고, 화단을 정리하며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식물에 물을 주고, 시든 잎을 제거하면서 마치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다듬어지는 시간

이었습니다. 보기 흉한 차량타이어가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차량 부딪힘 방지 위해) 그곳에 아름답고 풍성한 수국 꽃나무를 심어 너무 아름답게 단장된 모습을 보고 강변교회 자매님께서 “교회가 정말 환해졌어요!”라고 말씀하실 때, 그동안의 수고와 보람으로 돌아왔습니다. 교회의 구석구석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부분들까지 보게 하시고, 마음 주셔서 최선을 다해 마무리하게 하셨습니다.

교회 내부와 외부를 깨끗이 청소하며 모든 공간이 예배와 전도를 위한 준비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전도 잔치를 준비하면서는 주님께서 이곳에 보내실 영혼들을 위한 자리를 하나하나 닦고 정리했습니다. 모든 손길이 모여 잔치가 시작되었을 때, 교회를 찾은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이 초청한 이웃 분들이 음식을 먹고 나누며, 예배드리는 시간에 얼굴에는 기쁨과 감사의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비록 우리의 손길은 작은 것이었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니 작은 변화가 큰 회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외벽이 새로워지고, 화단에 생명이 자라며, 교회가 깨끗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더욱 충성하고, 제 손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일에 함께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5.
06

예이비 양육과정 간증

02

1. 허재원 집사 (C강남공동체)
2. 김종임 성도 (강북공동체)
3. 구정민 성도 (C강남공동체)
4. 임채욱 성도 (N강남공동체)
5. 박은경E 성도 (C강남공동체)
6. 이선학 성도 (E서초공동체)

예수님의 이름은 강력한 영적 메시지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허재원 집사 (C강남공동체)



첫 모임에 참석하면서
조원들과 시간을 조
율하다가 시간이 애매
해지자 조장님께 다
음 기수로 연기하겠
다 연락을 드렸습니
다. 그러자 같은 조원

으로 배정되었던 형제
님께서 소식을 듣고 시간을 바꾸거나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해결을 하고 같이 들으면 안 되
겠냐고 설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순장으로 섬기
고 있으며, 얼마 전 제직 훈련까지 받았는데
여전히 내 불편함을 참지 못하는 모습이 부끄
러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임으로 다시 돌아
가게 되었습니다. 인도자님은 저를 ‘돌아온 탕
자’라면서 반겨 주셨고, 은혜 안에서 예수 이
름의 비밀 양육과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공부를 진행하면서 ‘예수’라는 이름이 성경
속에서 다양한 표현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주’, ‘임마누엘’, ‘어
린양’, ‘왕의 왕’, ‘만유의 주재’, ‘하나님의 아
들’, ‘인자’, ‘알파와 오메가’, ‘성육신 되신 말
씀’, ‘평강의 왕’, ‘위대한 대제사장’, ‘포도나
무’, ‘선한 목자’ 등, 각각의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를 배우면서,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더
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이름을 묵상하
며, 제가 이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단순한 공
부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시며 나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계시는 과정임을 느꼈습니

다. 그렇기에 처음에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 들고 편안히 쉴 수 있는 일정이 불편해지
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컸지만, 하나님께서 저에
게 더 깊은 교제와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옆에서 함께 하시면서 환경을 통해 설득해 주
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또한 ‘어린양’이라는 이름을 공부하면서 예
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다시금 묵상하는 시
간이 되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
실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어린양’이라는 이
름을 통해 더욱 선명하게 예수님의 순종과 희
생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
하시기 위해 흠 없는 어린양으로 자신을 내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 저는 예수님의 이름이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
는 강력한 영적 메시지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재’이신 예수님이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그분과
더욱 깊이 동행하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더욱 의
지하고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
다.

이번 예이비 양육과정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
이 담고 있는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해 주신 하
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배움을 제 삶 속에서
실천하고 더욱 깊이 묵상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은 능동태가 아니라 절대적인 수동태이다!

김종임 성도 (강북공동체)



언제나 모든 양육과
정에 참여하기를 몸
시 주저하는 저는 사
랑의 추적자이신 하
나님의 끈질기신 추적에
또 한 번 포위되어 무
거운 마음으로 예이비
과정을 신청하게 되었

습니다. 추운 겨울에 강북에서 한강을 건너 교
회까지, 그것도 저녁 시간에 15번을 가야 하
다. 첫 날 인사만 하고 양육과정을 포기해야겠
다고 생각하고 참석했던 첫 날 준비모임부터
처음 만난 분들과의 나눔에서 또 한 번 뜨거
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또 나를 위
해 이 자리를 준비하셨구나’하는 감동이 있었
습니다.

고집세고 억센 본성에, 50여 년을 무소의 뿔
처럼 살던 삶의 방식이 몸에 배어 있는 저는
정말 무던히 오랜 시간을 교회와 세상 사이를
넘나들며, 선뜻 하나님의 품 안에 파고들지 못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셨으
면 이 세상을 어찌 살아가 수 있을까’하는 생
각은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 삶의 조종간을 내
어드리지 못하고 모든 영역에서 ‘내가 총사령
관이 되어 큰 해로로 살아가는 저였습니다.
누구보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적인 목
표를 위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저는
언제나 지치고 힘들었으며, 나이가 들어가며
세상적으로 가졌던 능력이 소멸되어 가면서는
불안과 걱정이 머리를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예이비 과정은 하나님이 저를 위

해 하나님의 때에 준비해 주신 너무나 고귀한
선물이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와 기도를 드
리는 크리스천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
신지를 명확하게 알아가면서, 이제까지의 삶
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저와 함께 하셨고, 저
를 도우셨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왜 제가 온전
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과 평온과 기쁨
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
다. 이제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지, 어
떻게 구체적으로 믿을 생활을 해야 하고 성령
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지 나침반과 지도
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제 마음속에는 큰
해로가 저항을 하면서 버티고 있고, 인생의 목
은 고민과 불만과 걱정을 몰아내지 못하였습
니다. 그러나,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한 자녀로 살고 싶
습니다. 이제는 기도와 말씀 생활을 어떠한 타
협과 핑계도 없이 최우선으로 하고, 좀 더 용
기를 내어 사역에도 적극 동참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멀다는 핑계에 주중에 하는 예배와 양
육 과정에 참석하는 것이 어렵게만 느껴졌으
나, 추운 겨울밤 15회의 예이비 과정을 무사히
완주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
여해 보자고 스스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계획과 결심 또한 ‘양으로 생명을 얻
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주님의 인도하
심’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아
무 자격 없는 제게 예이비라는 존귀한 양육의
기회를 주신 교회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농축된 주님의 사랑이 저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구정민 성도 (C강남공동체)



새로운교회로 옮기기 전,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다는 갈망으로 이리저리 검색하던 중 온라인으로 들었던 목사님의 예수 이름의 비밀 시리즈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이후 주님이 새로운교회로 보내 주신 후 성경속으로, 커피브레이크, CES 멘티, 멘토 양육 프로그램은 매마른 마음 밭에 기름진 양분으로 저의 영이 무럭무럭 자라나게 해 주었습니다. 3년이 차야 들을 수 있는 예수 이름의 비밀(에이비) 양육 과정을 기다리다 지체 없이 신청을 하였고 각자의 특성대로 다른 모양으로 경험케 하시는 주님이시기에 제가 경험한 예수님을 나누며 다른 사람들이 체험한 예수님을 들으며 예수님을 더욱 알고자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형편은 조금 특별합니다. 둘째 아들은 심한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1급 자폐라는 판정을 받고 하염없이 울던 그날, 주님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머리카락까지 세고 있다” 말씀하시며 먼저 저를 잡아 주셨습니다. 둘째 아들과 씨름하는 24해의 시간 동안 주님은 종종 저를 먼저 준비시키셨습니다. 유난히 말씀이 달고 기도가 깊어지면 여지없이 곧 아이는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시키시니 그 또한 지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특별한 사랑을 먼저 퍼부어 주셨습니다.

아는 만큼 사랑하고, 사랑한 만큼 알고 싶어 진다는 말이 정말 사실입니다. 주신 사랑에 화답하고픈 마음은 주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으로 치달았고 이번 에이비의 과정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광대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15과의 “של 만한 물가”가 흐르는 물도 먹지 못하는 양들이 잘 먹을 수 있게 잔잔하게 물을 모아 주는 것을 뜻하는 것을 알았을 때 15주 에이비를 관통하는 농축된 주님의 사랑이 저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러니 저의 지금의 형편은 주께서 가장 좋은 길로 만들어 주셨음이며 제 입술엔 찬송이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몇 년 전 “주님과 저와의 은밀한 거리는 어느 정도일까요... 더 가까이 주 앞에 있고 싶어요”라는 질문에 “내가 네 안에 있는데 어떻게 더 가까워질 수 있겠니?”라고 마음으로 울림을 주셨을 때만 해도 “그렇지!”, “당연하지”라고 마음에만 품고 있었는데 15주간 집중적으로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면서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감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거리를 저와 주님만이 알고 있으니 더욱 은밀합니다. 이 친밀한 관계가 참으로 영광입니다. 매일 저를 내려놓아 제 안에 계신 주께서 저를 온전히 주관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세심히 파내어 알게 한 에이비 과정은 참 보배입니다.

앞으로의 제 평생이 주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저의 삶이 충만케 되기를 기도합니다.

50대 중년들이 예수님 안에서 울고 웃으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임채욱 성도 (N강남공동체)



최근 몇 년간 저는 참으로 숨 가쁘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로 우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제 회사가 잘 자리 잡고 꾸준히 성장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을 구상하고 실행하느라 늘 바쁜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바쁨수록 신앙생활에 더욱 열심을 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2년 전부터 CES 멘티와 멘토스쿨 과정을 연속으로 마쳤고, 이후 CES 멘토로서 훌륭한 멘티 두 분을 차례로 만나며 함께 기독교의 기초를 나누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순장이라는 새로운 책임까지 맡게 되었는데, 제가 ‘예수 이름의 비밀’ 과정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아내는 “너무 숨 가쁘게 몰아가는 것 아닌가? 회사 일도 바쁘는데 몇 년째 쉬지 않고 훈련받다가 지쳐 포기할 수 있으니 쉬엄쉬엄 하는 게 어떨겠냐”라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과는 달리 아내의 눈빛과 표정에서는 “그래, 당신 참 잘하고 있다”는 흐릿함이 느껴졌습니다. 2년간 쉬지 않고 CES 멘티와 멘토로 하나님을 가까이할수록 예수님에 대한 지적 호기심은 더욱 깊어졌고,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 이름의 비밀’ 과정 안내가 있었을 때 주저 없이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남다른 기도의 능력을 가진 장로님의 인도하심 아래, 시간이 지나고 모임이 거듭될수록 우

리 50대 네 사람은 울고 웃으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만남 중에 나누는 교제와 간증을 통해 ‘예수 이름의 비밀’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의 비밀까지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장으로, 회사에서는 리더로 활약하는 우리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는 한낱 어린아이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기껏해야 남편, 아빠, 사장, 성도 정도로만 불리며 그 어느 하나도 제대로 역할을 해내기 힘든데, 예수님은 그리스도, 어린양, 만유의 주재, 임마누엘, 왕의 왕 등 15개의 높으신 이름으로 불리시며 그 모든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무한한 감동과 존경심이 더욱 커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만남 중에 크고 작은 간증이 쏟아지고, 말 못할 고민을 나누며 서로 위로하고 울고 웃으며 보낸 지난 15번의 만남은 예수 이름의 비밀을 알게 하신 기쁨만큼이나, 우리의 비밀을 서로 나누고 친구가 되게 하신 아름다운 기회였습니다. 서로 잘 몰랐던 50대 중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형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만난 우리 네 사람은 이제 자매들이 그러는 것처럼 당당히 양재천길을 함께 걸으며 만개한 벚꽃과 개나리를 즐기며 깔깔거리는 예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 새로운 영적 형제들과의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 신앙과 삶에 큰 전환점이 되었고 잊지 못할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박은경E 성도 (C강남공동체)



4명이 한 조가 되어 우리는 매주 주님의 이름에 대한 말씀을 미리 묵상하고 교재를 공부하며 말씀을 암송하였고 함께 모여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15주 동안 한주도 빠짐없이 우리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었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모인 우리 4명이 개성도 다르고 서로 잘 알지 못해 어색했지만 4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찬양과 중보기도는 뜨거웠으며 나눔의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받은 은혜가 점점 풍성해져서 우리는 매주 이 시간을 기대하고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다니엘 금식을 하고 함께 특새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매주 주일예배, 새벽예배, 수요일예배의 말씀이 예수 이름의 비밀 주제에 관한 연결된 말씀이어서 모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치심을 모두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를 위한 맞춤형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에 대해 말씀을 배우고 나누며 기도하면서 처음보다 변화된 마음과 생각을 서로 마주하여 볼 수 있었던 것이 큰 은혜였

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었고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었으며 우리의 생각과 삶의 태도가 변화되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는 새로운 장막으로 이사를 하였고 둘째 아이가 드라마틱하게 대학을 합격하는 기적을 주셨으며 시아버님께서 큰 수술 이후 고비가 있었지만 회복되셔서 퇴원하시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하게도 10년 만에 부목사님을 모시고 가정 심방을 받을 수 있었고 그동안 간절히 기도 제목이었던 남편의 교회공동체 생활을 위한 순배정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조원들과 멘토스쿨을 함께 마치고 멘토로서, 그리고 공동체 리더십으로 새로운 사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우리 조원님들이 각자 말씀을 묵상한 내용과 살아낸 삶을 이야기할 때 정말 많이 배우고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 부르짖어 기도했던 모든 시간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제 신앙과 삶에 큰 전환점이 되었고 잊지 못할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에게 예비 인도자로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각자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진 성도님들과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예수 이름의 비밀에 대해 배워갈 때 그들 속에 역사하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 과정 동안 보여주신 우리 인도자님의 사랑과 섬김과 이끌어주시는 리더십을 본받아 저도 섬기며 사랑하며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인도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선학 성도 (E서초공동체)



예이비 양육과정 16 주간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몇 가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첫째는 ‘말씀과 기도로 영성을 회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네 이웃을 사랑하고 위하여 중보기도하라’였습니다. 그리고 ‘네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따라 금년 1월 1일부터 성경 읽기를 시작했고, 1년 1독 진도에 맞춰 지금까지 매일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한 목회자의 주일설교 본문이 제가 읽고 있는 성경 진도와 일치할 때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설교 내용도 제가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진단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원 3명이 모두 ‘오늘 말씀은 저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중보기도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제목들과 단독방을 뒤져서 기도제목들을 한 곳에 모아 정리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가 서로 기도해 주기로 약속한 내용들을 빠짐없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포기하기란 쉽지가 않았습니다. 작년 말 즈음에 직장을 정리하고 귀국한 이후 새로운 직업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꽤 높은 연봉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기도하

던 곳이 두 군데 있었는데 모두 지방에서 근무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가장으로서 집안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핑계로 지방이라도 내려가서 일하다가 주말에는 서울로 올라와 교회에 출석만 하기로 작정하고 두 회사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이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A라는 회사로 가기로 하면 B회사가 걸리고, B로 결정하면 A가 방해가 되어 결정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이비 양육과정을 시작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영적성장을 위해서라면 둘 다 내려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두 회사 모두에게 ‘No’라고 통보하였고, 그렇게 결정하고 나니까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얼마 후, 예이비 양육과정 종강이 다가올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다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회사에서, 그것도 서울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입사제안이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라 생각하고 아무 고민 없이 제안을 수락했고, 입사를 위한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4월 1일부터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길을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4개월 동안 섬겨주신 인도자님과, 서로 격려하며 끝까지 함께했던 조원님들, 그리고 이런 좋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시고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25.
06

구도자 커피브레이크 간증

03

1. 류미선 성도 (E강남공동체)
2. 김혜선E 청년 (청년1부)
3. 박인해 성도 (우면공동체)
4. 김지현A 성도 (S서초공동체)

무니만 기독교인이었던 저를 깨우쳐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류미선 성도 (E강남공동체)



모태신앙으로 40년 넘게 살아온 저는 그동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믿음 좋은 권사님이셨던 엄마 덕분에 인지 크게 기도로 구할 일이 없었습니다.

남들 보기에 큰 어려움이 없어 보였겠지만 여러 가지 쌓여가는 일들로 저는 점점 더 우울의 늪으로 빠져 들어 혼자서는 헤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순장님의 추천으로 무심코 열어 본 커피브레이크는 초신자들과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저 같은 사람을 위한 성경 공부였습니다. 게다가 평소 창조론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사춘기 딸과의 대화에서 질문에 속 시원히 답해주지 못해 답답했던 저에게 창세기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성경 공부였습니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신청기한이 거의 끝나가는 무렵 다시 들어간 커브 신청서에서 그날이 바로 커브 시작일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순간 무슨 이름이었는지 먹던 밥을 뒤로하고 무작정 차를 끌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차는 많았고 한 두 방울씩 떨어지는 빗방울에 도착 예정시간은 자꾸만 늦춰졌습니다. 몇 번이고 지금 가면 30분은 늦을 텐데 운전대를 그냥 돌릴까? 너무 늦어서 들어가지 못하면 어찌지? 하는 걱정을 하며 도착해 어렵게 주차를 하고 7층에 들어간 순간, 이름을 물어보시는 인도자분께 머뭇거리며 시작 날짜를 착각해서 신청서도 작성하지 못하고 왔

고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서 운명처럼 저는 1조에 배정받아 은혜로운 조원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용기 있게 너무 잘 왔으며 조장님과 부조장님은 따뜻하게 맞아 주셨고 커브에서는 어떤 질문을 해도 괜찮다는 목사님 말씀에 한 발짝 더 용기를 내어 첫날부터 그동안 궁금했던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갈까 말까 고민은 첫날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교총 건물은 한창 주차장 공사 중이었고 외부 교육까지 있던 터라 올 때마다 주차난에 교총 건물을 몇 바퀴 돌면서 매번 그냥 집에 돌아갈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예비하신 것처럼 제가 주차할 한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결국 마지막 주까지 차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성경 공부는 성경 한 장 한 장 말씀 속에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구나! 무니만 기독교인이었던 저를 깨우쳐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조금씩 저와 가족들에게 변화가 생겼지만, 하나님을 알아가고 은혜를 나누는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바뀌지 않으면 어찌지? 내가 또 우울해지면 어찌지? 나는 더 내려갈 곳이 없는데 다시 깊이 내려가서 올라오지 못하면 어찌지? 여전히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야훼 언약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날 세우시네' 찬양처럼 날 일으켜 주사 더욱더 강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반한 믿음

김혜선E 청년 (청년1부)



새로운 교회에 온 2022년부터 지난 2년 동안 구도자 커피브레이크에서 4번의 커피브레이크를 통해 양육받았습니다. 2022년 당시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며 시작했던 것이 성경통독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서 성경을 읽는 것이 어려웠지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안 가는대로 넘어가며 무작정 성경을 통독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커피브레이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커피브레이크를 통해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알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말씀이며, 통독에서 주는 기쁨을 더욱 누릴 수 있었습니다. 커피브레이크는 말씀과 친밀해짐으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함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구도자 커브를 수료하고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 학기 구도자 커브에서 부인도자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섬기고 있는 사역들에서도 저의 능력 부족을 많이 느끼고 있던 시기여서 새로운 부르심에 대해 염려와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경험하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순

종으로 나아갔습니다. 저의 걱정과 염려와는 달리 첫 인도자 모임에서 이전에 조원으로 커피브레이크를 들 때보다 더욱 깊고 풍성한 나눔으로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 깊은 교제와 더 넓은 영적세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크신 사랑으로 저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조원일 때는 제가 받을 은혜를 기대하며 나왔다면 이번에는 커브와 모든 조원분들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조원들과 나눔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준비하며 말씀을 더욱 사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커브의 창세기 말씀을 배우는 6주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 더욱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4월 한 달 동안 일터에서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천지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때와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를 주목하시고 사랑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붙들 때 상황과 관계 없이 저의 영혼에 평안을 주심을 경험하며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방식에 맞추어 가며, 하나님의 말씀가운데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요동하지 않고 말씀에 기반한 믿음을 더해주시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어렵게 다가왔던 창세기가 사실적으로 느껴집니다

박인해 성도 (우면공동체)



저는 2월에 인천에서 우면동으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이사 오기 전에는 우면동에 거주하시는 시부모님을 뵈러 오면서 주일 예배만 참석했습니다. 처음에는 예배 듣는 것을 목표로 주일 아침에 인천에서 바쁘게 달려왔고, 말씀 듣는 것만으로도 참 만족스럽고 충만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광고에서 나오는 양육 프로그램들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멀었고, 또 온라인으로 하기엔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시간이라서 마음에 아쉬움이 남아있었습니다.

우면동으로 이사 오기 전, 2025년을 앞두고 작은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사를 가게 되어 교회와 가까워지게 되면,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성경공부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사를 오게 되고 당장 3월에 창세기 커피브레이크가 개강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부담이 생겼습니다. 동네에도 적응해야 하고, 순예배도 처음 시작해 보는데, 커브까지...? 아이들 어린 이집도 적응해야 하고, 믿음 좋은 시어머니께 고민을 얘기하니, 아이들은 얼마든 봐줄 테니, 성경공부 할 수 있을 때에 하라며 응원해 주셨습니다.

커피브레이크는 제가 생각한 성경공부보다 제가 말을 많이 해야 했습니다. 수업을 듣는다고 생각했는데, 수업에 참여해서 다른 조원분들과 얘기 나누고, 또 다양한 의견도 듣고 생각해 볼 기회가 참 많았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그 속에 숨어있는 의미를 알게 되고, 혼자서 읽으면 절대 알지 못했을 의미와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걸 물어봐도 되나?' 싶은 기초적인 질문, 엉뚱한 질문들도 편하게 물어볼 수 있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저의 엉뚱하고 뜬금없는 질문에도, 너무나도 너그러이 받아주시는 인도자님과 부인도자님, 조원분들 덕분에 커브 가는 시간이 편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엔, 여러 연령이 섞여있던 것도 좋았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지혜를 듣는 시간이 믿음 생활에도, 가정생활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커피브레이크를 통해서 어렵고 약간 판타지 같이 다가왔던 창세기가, 사실적으로 다가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요즘 이 좋은 날씨를 보며,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세상에 참 위대하심을 느끼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감사함을 느낍니다. 다음 학기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저만의 방주 만들기를 기도합니다

김지현A 성도 (S서초공동체)



작년 구도자 커브의 유익했던 경험으로 다시 커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학기에 만난 인도자님과 조원들을 다시 만나니 더 친숙하고 반가움에 시간이 지날수록 나눔도 자연스럽게 깊어지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창세기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하셨는데,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에 대해 알려 주시고 쓰여져서일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창세기를 배우며 크게 교회 공동체의 감사함과 하나님과의 교제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 속의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는 현재 짝이 없는 제게는 늘 아쉬운 마음에 참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말로 들리곤 했습니다. 돕는 배필은 성경적으로 더 확대해서 교회공동체가 된다는 설명을 듣고 나니, 저를 돕고 있고 제가 도울 수 있는 상대가 교회 공동체 속에도 있구나 하는 생각에 순간 제 삶이 덜 외롭게 느껴졌고, 교회 공동체 속의 관계가 더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번 커브 기간은 특별히 고난 주간과 함께 했는데, 매주 성경공부를 통해 배우는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또 매일 QT 나눔을 해 주시는 인도자님의 기도문을 통해 그 은혜가 배가 되었던 듯합니다. 안식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배웠고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제 고민에

대해 들으신 인도자님께서 하나님과 혼자 하는 교제의 중요성, 혼자 하는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연이어 고난 주간 새벽예배에 저는 교회의 일원이지만 또한 제가 교회이기도 하다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뇌리에 꽂혔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 '아 이거지' 하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저를 어렵게 만들었던 제 마음을 해결할 방향성을 찾아 나갔습니다. 교회 내의 양육과정과 공동체 속에서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사람의 도움이 아닌 오직 말씀의 도움으로 성숙해져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어렵게만 느껴졌던 QT와 성경 읽기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간절히 느끼면서 그동안 중단한 성경 읽기를 다시 읽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에게 대해 배우며 제 삶에 제가 제 사장이 되어 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마음이겠지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하나님의 홍수심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렸을 때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그동안의 제 인생 속에도 제게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노아 같은 존재가 있었을 텐데,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채 살아가기로 했던 그동안의 긴 시간들에 대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과 끊임 없이 교제하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며 그대로 살리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120년 동안 방주 공사를 한 노아처럼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는 저만의 방주 만들기를 기도합니다.

2025.
06

마더와이즈 간증

04

1. 백현자 권사 (S강남공동체)
2. 배지현 성도 (W서초공동체)
3. 박은희A 성도 (N강남공동체)
4. 박혜윤A 성도 (C강남공동체)

실패하고 실수하는 어머니이지만 제가 성장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백현자 권사 (S강남공동체)



마더와이즈 지혜 과정의 조장으로 섬기게 됨이 저에게 은혜입니다.

제가 마더와이즈를 만나게 된 때는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였습니다.

엄마가 되었지만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은 저에게 참으로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힘든 상태에서 자녀들까지 감당하기에는 저에게 큰 고난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지만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 저의 마음과는 다르게 저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이미 우리 아들들은 엄마인 저와의 관계가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아들들은 게임의 세계로 빠져들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저는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어찌할지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 때 교회의 양육과정인 마더와이즈를 만남으로 성경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먼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마더와이즈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성인이 된 큰 아들은 교회에 잘 나와서 신앙생활이 성장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도제목인 둘째 아들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둘째로 인해 지

금까지 마더와이즈를 놓지 않고 10년이 넘게 계속해서 마더와이즈를 섬기게 된 것 같습니다. 마더와이즈를 통해 여전히 배우고 있고 실패하고 실수하는 어머니이지만 제가 성장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성령의 도우심으로 적용할 때마다 마더인 제가 먼저 평안을 누리게 되니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삶의 다양한 관계 안에서 여성들을 성숙하게 세워주는 말씀의 원리인 마더와이즈 지혜과정을 통해 가정이 회복되고 아픈 자녀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남편과의 관계가 개선되어 가는 천국 가정이 이 땅 가운데 가득 넘칠길 기도합니다.

우리 조원들도 은혜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으로 좋은 마더가 되기 위해 여러 사연을 가지고 마더와이즈에 참석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모함으로 기도하며 존경받는 엄마와 아내로서의 사명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마더님들을 보니 참으로 존경스럽고 우리나라의 가정에 아직도 소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서로 뜨겁게 기도하며 자신의 아픔을, 자녀의 아픔을, 남편과의 아픔을 나누며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게 하셨습니다. 매일 서로의 나눔이 풍성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아픔이 변하여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더와이즈 전 과정이 주옥같습니다

배지현 성도 (W서초공동체)



하나님을 만난 지 2년 6개월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 큰 아이의 영향이 제일 컸습니다. 아이가 중학교 1학년 10월 어느 토요일에 늦잠을 자

놀란 얼굴로 거실로 나오면서 “엄마, 나 학원 가야 해.” 하며 저와 눈을 마주친 후 쿵 소리와 함께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아이를 부둥켜안고 울며 아이의 이름과 하나님만 두서없이 소리치며 운 기억밖에 없습니다. 아이는 수십 초만에 정신이 돌아왔지만 자기가 기절한 것을 모르고 엄마의 모습을 당황스럽게 보더니 같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119를 부르고 아이와 함께 가는 그 구급차 안에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그 전날 아프다는 것을 평소 긴장성 편두통과 생리통이 심한 걸 알고 있었기에 그러려니 하며 넘겼습니다. 모든 검사를 끝마치고 몸에는 이상이 없으나 미주신경성실신 같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며 약 처방도 없이 집에 왔고 그날부터 모든 학원을 끊고 쉬면서 한의원과 한약을 먹으면서 치료를 하였습니다.

조금씩 나아지는 아이를 보면서 일상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들을 감사하면서도 사춘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 오히려 저는 더 불안감에 쌓여갔습니다. 아이가 또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학업중단, 사춘기와 함께 오는 나쁜 생활습관 등 뭐 하나 편한 게 없다 보니 저 또한 예전의 저의 모습이 나오는 것 같

아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마더와이즈의 양육프로그램을 보았고 그냥 고민 없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내내 제가 아이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매일 하는 공부는 제가 몰랐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간순간 놀라운 깨달음의 연속이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이 인격, 능력, 힘, 실재에 대해 확실히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는 잠언 3장 5절 말씀에 나의 명철로 우리 아이를 판단하고 재단하여 마침내는 제가 원하는 꼭두각시를 만들고 있던 건 아닌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녀들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고, 경건한 자녀로 기르라’에서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우상으로 생각하고 받들면서 살고 있었다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저에게 언제나 저와 우리 아이들, 우리 가정을 지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저의 믿음의 깊이가 알아 불안감에 사로잡혀 저와 아이들을 힘들게 했나 봅니다. 지금은 완전하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마더와이즈 전 과정이 주옥같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 속에 양육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기도를 마더와이즈를 통해 배웠습니다. 지금 저의 큰 아이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진료받은 결과 성장과정에서 그럴 수 있다는 괜찮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의 불안감을 완전히 없애 주신 하나님, 저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 아이를 만져 주시는 하나님... 마더와이즈의 다른 과정을 기다리며 이 글을 마칩니다.

가정이 살아나고 관계가 회복되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박은희A 성도 (N강남공동체)



아이들이 유아 때부터 새로운교회를 출석했는데, 주보에서 마더와이즈 광고를 볼 때면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참가하고 싶었으나 직장맘으로 시간이 안 맞거

나 저녁에도 퇴근 후 아이들을 챙겨야 한다는 생각에 번번이 외면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고1, 중2 사춘기 학생이 되었고 아이들을 위해 제가 할 일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시간적 여유도 많아졌는데, 첫째 아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 더 커졌습니다. 아들은 체질도 까다롭고 예민한 아이면서 규율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에 대한 사랑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의심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데에만 집중하는 저를 보면서 제가 먼저 달라져야 함을 깨닫고, 아이와 저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더와이즈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마더와이즈 과정은 잘 짜인 체계적인 과정으로, 처음에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내 삶의 반석이 주님의 말씀인지를 점검하게 하였고,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맡기고 늘 주님과 교제를 최우선으로 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제 삶에서 우선순위는 무엇이든지 주어진 일, 맡겨진 일을 참고 견디며 최선을 다해 성과를 내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지금의 제 삶이 공허해진 이유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만 매달리며 기도하고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제 믿음이 부끄러웠습니다. 앞으로의 삶은

주님이 주신 제 은사와 소명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남편과의 관계를 다룰 때에는 저희 부부의 의사소통이 크게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일과 취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데 가족과 좀 더 시간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특히 부부가 함께 대화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가정에서 남편보다 제가 더 헌신한다는 이유로 은근히 남편에게 권위적으로 굴었던 점도 반성하고 남편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대해 공부할 때에는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에게 구원과 믿음에 대한 가정교육을 하지 못하며 키운 것이 애통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지 못했던 것이 가장 후회되고 따뜻한 칭찬과 사랑의 표현 없이 지적하고 빨리 고치려고만 했던 제 모습으로 인해 아이가 지금 제 말에 반항하고 서로 대화가 어렵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이를 믿어주지 못하고 아이의 잘못에 감정적으로 대했던 부분들을 놓고 회개하고 아이에게도 용기 내어 사과를 하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도 어려운 부분인데, 저의 변화가 이 가정을 살리는 길이고, 가정 안의 여러 관계를 회복하는 시작이라 여기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나이가 들고 아이들도 다 커버려서 더 이상 제가 변화되기 어렵다고 느낄 때, 아직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과 마더와이즈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이들 등교 후 아이들의 방에 들어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박혜윤A 성도 (C강남공동체)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애를 쓰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바로 연년생을 낳았는데 그렇다 보니 결혼 전의 분주하던 삶이 대상만 달라진 채로 똑같이 이

어졌습니다.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고 키울지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양손에 두 아이를 붙들고 열심히 뛰기만 하던 때였습니다. 그 시기에 같은 셀에 있던 집사님께서 마더와이즈를 해보라며 권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책만 사놓고 어떻게 시작할지도 몰라 잊고 지내다가 10년도 더 지나 새로운교회에 와서야 마더와이즈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교회에 오기 전에 저희 부부는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두 손에 꼭 붙들고 뛰던 제 아이들은 사춘기가 오며 제 손을 놓았고, 방향도 모르고 그냥 뛰기만 했던 저는 코로나와 집안의 굶직한 일들을 핑계로 주님의 손을 놓았습니다. 울타리 없는 자유를 누리면서 저희 부부는 욕심껏 손에 쥐었던 것들도 다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이곳에 오게 되며 다시 예배의 기쁨을 알게 되었고, 좋은 가정을 세우고 싶다는 생각에 마더와이즈를 신청했습니다.

지혜 과정을 시작하며 ‘자녀들이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엄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아

내’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 마음을 아셨는지 매주 마더링 시간에 귀한 나눔들이 이어졌습니다. 자녀들을 통해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가정의 모습을 간증해주셨고, 어린 자녀들과 가정예배를 드리며 말씀 암송을 한다는 나눔에는 도전이 되었습니다. 집 곳곳에서 늘 기도한다는 자매님의 나눔에 저도 이제 아이들 등교 후 그 방에 들어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에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와 관계를 돌아보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저에게 남편과의 관계를 배우기 위한 준비운동 같은 것이었습니다. 성경적인 의미의 복종과 남편에 대한 섬김을 묵상하며 마음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곧 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오히려 이를 위해 더욱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사랑의 말을 하게 해 달라는 기도에서 나아가 남편에게도 사랑과 존경의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달라는 기도제목이 생겼습니다.

아직은 제 믿음도 약하고 은사도 딱히 없는 것 같다는 핑계로 그저 교회에 와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누리다가 가고 싶었던 마음도 이제는 은사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 이제 벽돌 몇 개 나른 수준일 수 있으나 시간이 흐른 뒤에 뒤를 돌아보며 주님이 함께 그 집을 지어주셨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5.
06

러브 미니스트리 단체 소개:

킹메이커
Kingmaker

05



러브 미니스트리 단체소개

킹메이커를 소개합니다!

청소년 부모들을 세우는 킹메이커 Kingmaker

‘청소년’과 ‘부모’는 낯선 단어의 조합입니다. 청소년이 부모가 된다는 상상이 허락되지 않는 사회에서 ‘사고 친 아들’로만 불렸던 청소년들은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개정을 통해 ‘청소년 부모’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설립계기

킹메이커 배보는 대표는 2015년에 자원봉사 활동으로 위기 청소년 캠프를 방문했을 때 임신한 청소년들을 많이 봤습니다. 임신부의 몸으로 집 없이 거리를 배회하고 밥도 며칠씩 굶는 등 상황이 매우 열악했는데, 대부분 아이 아빠가 있었기에 국가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청소년 ‘한부모’만 한 부모지원법으로 지원했었기 때문에, 아이 아빠와 헤어져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른 나이에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외면받아 원가족과 주변인들의 지지나 도움도 없었습니다. 이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뛰어 들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부모들이 겪는 어려움

청소년 부모에겐 임신부터가 위기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축하받지 못하는 임신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임신 사실을 숨기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임신부 몸에 맞는 영양 관리도 못 합니다. 본인부터 임신 사실에 주눅이 들기 때문에 육아용품 준비하거나 각종 정보를 찾아보면서 출산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지도 못합니다. 스트레스와 영양 문제가 크다 보니 8개월 만에 덜컥 조산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출산 신호가 와도 10개월이 안 됐다는 이유로 인지를 못하다가 집에서 긴급 출산을 하기도 합니다.

주거 또한 큰 문제입니다. 안정적인 거주지는 아이 양육을 위해 정말 중요하지만, 청소년 부모들은 집을 구하기가 어려워 찜질방이나 모텔을 전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러는 가출 청소년들에게 숙식을 제공해 주는 대가로 성착취를 일삼는 ‘헬퍼’에게 가기도 합니다.

청소년은 법적 능력이 없어 부모 동의 없이는 주거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부모 대부분은 가정불화나 학대 등을 겪어 원가족 지지 기반이 약하기에 부모의 동의를 받기 어렵습니다. 당연히 경제적 지원을 받기도 힘들어 최소한의 주거 보증금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겨우 목돈을 마련하고 부모님 동의를 받았다 해도 계약을 해주지 않는 집주인들이 많습니다. 보증금 없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월세를 내게 하거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도록 주소 이전을 못 하게 하는 식입니다. LH 임대 등 사회적 지원 체계를 이용하기도 어렵습니다.

청소년 부모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킹메이커의 사업

우선 ‘인큐베이팅 하우스’라는 주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인큐베이팅’은 단순히 주거지를 지원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속에서 자립과 성장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소년 부모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자립 역량을 키우는 것을 조건으로 보증금과 월세를 지원합니다.

이때 청소년들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 ‘조밀착 사례관리’입니다. 청소년 부모와 삶을 공유하며 주거·생계·근로 등 전반적인 생활 영역을 돕는 사례관리입니다. 청소년 부모가 겪는 어려움을 정착을 위한 자산이 적은 것뿐만 아니라 생활 문제의 해결책을 알려줄 삶의 멘토가 없다는 점에서 비롯되기에, 주거 지원을 바탕으로 한 밀착형 사례관리가 필요합니다.

청소년부모성장지원을 통해 부모들이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검정고시, 대학수학능력시험, 자격증 취득 지원을 통해 부모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학교를 다니고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을 킹메이커에서 돕고 있습니다.

킹메이커는 신앙교육을 통해 믿음의 기초를 놓고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청소년 부모들이 좌절과 두려움, 염려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정기적인 예배와 성경공부, 아기들을 위한 프로그램, 청소년 부모의 날 등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예배공동체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함께 믿음 안에서 성장함으로 어려움의 시간들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부모데이 3로 롯데월드 다녀온 효정, 우현입니다
일도하고, 학업중이기도 해서 서로 놀러갈 시간도 없었는데, 좋은 기회가 생겨서 아이도 재밌고, 저희도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했고, 저희 나이때로 돌아간 느낌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마음편히 다녀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은이도 재밌었다고 좋아했어요
좋은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효정, 우현, 하은 드림 -

안녕하세요 오늘 새로운교회 청소년부모데이 3로 롯데월드 다녀온 동하네가족입니다!
아이랑 뭐할까 고민이 많은 날씨였는데 아이도 너무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해주시고, 저도 오랜만에 신나게 놀고, 항상 새로운교회 성도님들이 아이를 사랑으로 잘 봐주셔서 아이 걱정없이 재밌게 놀 수 있었어요!!
선물도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동하네가족드림-

마무리하며...

청소년 부모를 지원한다고 하면 ‘청소년 임신’을 조장하는 것이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이는 틀린 얘기입니다. 국가가 청소년 부모를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책무입니다. 청소년 부모 역시 우리의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사고 친 애들’이라는 비난보다 중요한 건 청소년 부모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청소년 부모와 그들의 아이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어른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함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많은 도움의 손길을 기억하며 청소년 부모 가정을 세우는 사역에 온 힘을 다해 달려갑니다.

새로운교회의 지속적인 후원과 섬김에 감사를 드리며 이 땅의 모든 청소년 부모들이 십자가 은혜 안에서 참된 소망과 가치를 발견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지길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킹메이커 홈페이지: kingmaker.or.kr



SUMMER MISSION TRIP 2025 여름 선교 일정



몽골 Mongolia

6.18-21 뉴젠파사세미나
6.23-27 현지인사역자대회



제주 Jeju

7.31-8.2 단기선교



캄보디아 Cambodia

6.18-22 교사강습회
8.10-15 단기선교



인도네시아 Indonesia

8.10-15 단기선교



| 각 선교팀의 사역을 위해 기도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Wednesday Prayer Worship



6월 수요기도예배 선교

6/4 김선일 목사
(인천 영전교회)

6/11 김선교 목사

6/18 김도형 목사

6/25 김소리 목사

시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 낮 12시 문의 조은영 목사 choeunyoung@saeroun.net



예배장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한국교총 1층 컨벤션홀
사무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뒀로6길 56 삼준빌딩 3층

TEL (02) 597-0691 **FAX** (02) 597-0601 **WEB** www.saeroun.net